

# 대만 정공 스님 '건륭대장경' 한국에 보시

### 강원·대학·연구기관 등에 총 100질 청대 제작... 불경 주해·논술도 포함돼

대만 화장정종학회 영구지도교사인 정공 스님이 한국에 청대 건륭(乾隆)판 대장경(大藏經) <龍藏(용장)> 100질(10억원 상당)을 법보시했다.

건륭판 대장경 <龍藏>은 순천 송광사, 김천 청암사 등 주요사찰 승가교육기관 14곳, 남양주 봉인사 등 불교도서관 및 연구기관 33곳, 기타 3곳, 동국대 원광대 등 종합대학 50여곳 등 총 100곳에 배포됐다.

<龍藏>은 중국 청나라때 건륭왕이 칙령으로 당시 불문(佛門)의 대덕 스님과 학자들에게 편찬케한 대장경이다. 1질은 121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대장경은 불경을 포함하여 역대 고승대덕과 전문학자들의 불경에 대한 주해와 논술, 보고서 등 당시 불교관련

자료를 집대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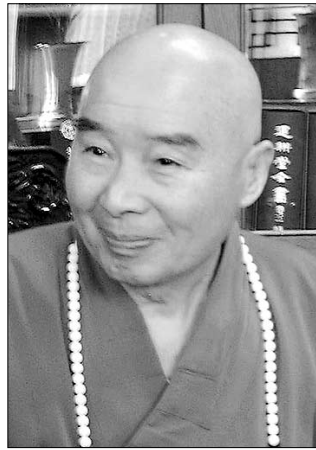
그런만큼 <龍藏>은 내용이 풍부하여 중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인류문화의 보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법보시된 <龍藏>은 황가에서 주관하여 인쇄한 궁정판(宮廷版) 대장경을 고본(古本)으로 복사하여 글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또 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목록을 새로 재편하였다.

정공 스님은 기증서에서 "한중문화 교류에 있어 불경의 학습이 중요한 부분이다.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보전을 한국의 사찰과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지혜의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에게 공양하는



정공 스님(사진 왼쪽)이 한국에 법보시한 청대 건륭판 대장경 <용장>의 모습.

것은 그 분들에게서 연구와 교학의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이를 통해 세계다문화와 평화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정공 스님은 또 <정공법사의 료법사훈 강술> 1만 3000부, 소형염불기 1만개, <염불공덕> 1만부도 함께 법공양했다. 소형염불기와 <염불공덕> 소책자는 전국 불교병원법당, 사회복지관, 양로



정공 스님(사진 왼쪽)이 한국에 법보시한 청대 건륭판 대장경 <용장>의 모습.

원, 유치원에 법공양할 예정이다. 법공양 신청은 팩스 (02)730-2646.

한편 정공 스님은 1927년 중국 안휘성 여강현에서 출생, 1949년 대만으로 이주했다. 1959년 임제사에서 득도했고, 이후 48년동안 윤리도덕 회복과 대승불교 자비정신 홍보를 기원하며 강경

과 불교교육, 법보시에 전념하고 있다. 스님은 비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 TV등을 통해 포교하는가 하면 <십선업도경> 등의 경전을 영어 불어 아랍어 스페인어 노어 등 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ia.com

## 가산불교대사람 제8권 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최근 <가산불교대사람> 제8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가산불교대사람> 제8권은 '바수개사(인도 유식학자)'로 시작, '법종(사찰 종주의종)'까지 5000여개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1999년 1·2권이 나온 이래 매년 1권씩 출간되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람>은 불교학 용어뿐 아니라 불교관련 인명·사찰·사지·문화재·역사적 사건까지 불교 관련 용어를 두루 포괄하는 불교대백과사전이다.

특히 <가산불교대사람>은 한자어·산스크리트어·파알리어·타베트어 등 원어와 원문을 병기해 전문사전으로서의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불교대사전들이 어려운 용어해설로 인해 일관적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단점을 감안해 용어 설명을 쉽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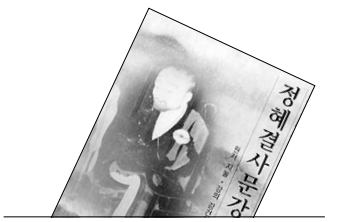
한편 2013년까지 총 15권으로 편찬 예정인 <가산불교대사람>에는 15만여 표제어가 실리게 된다. (02)765-9602

노병철 기자 esamin@buddhania.com



## 지눌 스님 '정혜결사' 지금 여기서 다시읽기

### 강건기 교수 강의 내용 엮어



정혜결사문 강의  
불일출판사 | 강건기 | 1만2000원

"땅으로 넘어진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땅을 떠나 일어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한마음을 미(迷)하여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한 마음을 깨쳐서 끝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비록 미함과 깨침은 다르지만 이는 모두 한 마음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고려불교가 옷과 밥만 허비하고 있다"고 통탄한 목우자 지눌 스님(1158-1210).

스님은 "넘어진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인간답게 살려는 모든 사람은 중생본능을 청산하고 부처의 새로운 삶으로 다시 나자"고 말한다.

스님의 가르침을 읽다보면 800년전

의 얘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늘 날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뒤흔든다.

12-13세기 불교가 타락하고, 선교가 극심하게 대립하자 지눌 스님은 고려불교를 정법불교로 바로잡기 위하여 25세에 정혜결사를 결의한다. 그리고는 33세에 문자 그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는 한국불교역사상 최초의 체계적 결사인 정혜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때 그 취지문으로 발표한 것이 지눌 스님 최초의 저술인 <정혜결사문>이다. <정혜결사문>은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불교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전북대 철학과 강건기 교수가 2005년 1월 LA 고려사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정혜결사문 강의>는 불교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눌 스님은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마음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정혜결사문>은 정혜결사의 동기와 과정, 수심결사의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게 하는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과 앞을 기초하여 선정과 지혜를 닦고, 이를 통하여 일체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함께 하며, 따라서 선교정도, 선교 교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혜결사문>에 담긴 이러한 사상은 이후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으로 확립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상실의



보조 지눌 스님 영정(양신회 작).

깊은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자신을 회복하는 치유책이 될 것이다.

저자인 강건기 교수는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문>은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모든 이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여야 할 인생의 지침"이라며 "오늘날 정혜결사에 동참하여 마음을 닦는 조용한 혁명에 함께 한다는 자세로 읽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새로나온 책

#### ■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로 간다

(김재영 지음, 종이거울) = "수백만 석가족의 불교개종 운동. 붓다의 비폭력의 가르침이 허망하지 않구나. 살육자들은 흔적없이 사라졌는데 인도에 붓다가 이렇게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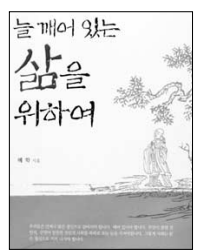
이 책은 인도를 아는데 세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불교와 히말라야 그리고 인도신화라고 설명한다. 이 중에서 먼저 불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만큼 인도의 문화와 역사, 문명을 관통하고, 산맥과 초원과 사막을 가로질러 초고속으로 인도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인 불교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보여준다. 특히 2600여년 전 인도 대륙에 전파된 불교를 밝힌 붓다의 생애를 따라가며 생동적인 설명과 선미 가득한 사전으로 문화대국인 인도를 안내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깨어있어 아름다운 삶

늘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혜학 지음 | 부다가야 | 9000원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깨어 있는 삶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다.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깨어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중생들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고있는 혜학 스님의 법문들을 모아 만든 <늘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는 어지러운 삶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일깨워준다.

지은이 혜학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생 수료했고,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9년 서울 아차산 영화사에서 前태고종 종정 안덕암 스님으로부터 제를 받고 득도 했다. 공군 군중법사로 근무했고, 현재 울산 망해사 주지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법화경 일승사상 연구> <법화경 후분 유품의 연구> <법화경 불신관의 구조> 등이 있고, 역서로 <법화사상>이 있다.

김원우 기자

### yosiamun.com 추천도서

- 잠남이보배다 생각하는백성, 김성수, 8000원
- 마음이란무엇인가 씨앗을뿌리는사람, 달라이라마 외, 1만2800원
- 하늘로 열린 땅 티베트 타클라마칸 기행은행나무, 서희동, 1만3000원
- 내게겐 나무 내게겐 부처님 조계종출판사, 양동호, 8000원
- 운명의변화 불일출판사,정공법사,1만원

도서주문 (02)2004-8220

#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 <운명>은 50%의 중간이익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해서도 책을 판매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 주요수룩내용 ■  
공화국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땀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저체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넌저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공합  
▶ 달로 보는 공합 ▶ 시(時)로 보는 공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옥(양철)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 빙의의 시대

신국판 / 312쪽 / 9,500원

돈벌이만 쫓는 빙의 전문가,  
귀신 쫓는 것만을 능사로 아는 반쪽자리 퇴마사들,  
인간과 귀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빙의를 말하지 말라.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지은이/ 일광(逸廣)  
도인(道人)의 길 은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느 여인이 정중하게 말했다.  
"선생님처럼 치료하면 남들이 믿겠습니까? 주수만 적어서 사흘 만에 빙을 고쳤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젠 제물도 갖추고 하다못해 기도드리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남들이 믿지요."  
허허, 그건 그렇다. 하지만 이미 물욕(物慾)을 집어든 인생은 사람들에게 점진된 귀신이나 천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빙을 고쳐주면서 조용히 살고자 한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인의 길이기도...